

‘로잔너머’ 연속심포지엄 3차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

* 2023년 10월 31일(화) 19시~21시 30분

*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5층

_ 서울 강남구 논현로132길 18, 학동역 10번 출구

* 여는 말씀 | 오형국 (청년신학아카데미 공동대표, 목사)

* 발제 | 황규태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 대화, 전도와 참여, 공존, 솔직함, 함께 시간보내기

김서진 (방송작가)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 여성, 시혜와 침묵, 급진적 순종과 화해

박다혜 (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 노동, 곁에 서는 현장감각, 이중언어 구사

* 논찬 | 전성민 (밴쿠버VIEW 원장)

김종호 (IFES 동아시아 부총무)

이강일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황규태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1. 총체성과 한국 기독교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참여가 곧 복음전도일 수는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인한다.’
(로잔언약 5항)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모두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총체성이고, 저는 이 총체성이 로잔과 복음주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교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실제적인 세상의 문제에 헌신하는 일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곧 인간, 문화, 자연 세계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선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잔언약의 정신을 계승한 케이프타운 서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케이프타운 서약, 10항 B)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선교의 총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께서 로잔이 말하는 총체성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다양한 사회의 영역의 총체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 안에 여전히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강조와 세상을 향한 헌신에 대한 강조 사이의 갈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에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와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과, 세상과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분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세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는 죄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은 종종 그 자체로 악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그려지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선교는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국한되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 주변에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임하는 꿈을 가지고 인권, 노동, 기후위기, 성평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과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그분들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라도 환영하지만, 그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정답을 미리 내려놓고 다른 의견이나 질문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마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그분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그분들에게 약자와 연대하지 않으려는 자로 보일까 걱정되어 말을 아낀 적이 있습니다.

3. 진정한 대화 - 제일 조선인과의 만남

이렇듯 제 안에는 복음 전도와 교회를 강조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무관심에 대한 불편함과, 사회 참여와 세상에서의 헌신을 강조하는 이들을 향한 우려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둘 사이의 통합을 이루는 총체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안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갈등 상황 속에서 진정한 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관계에 놓인 상대방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여기며 대화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 참여에 헌신하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는 무관심한 채 사회 운동에만 몰두하는 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복음전도주의자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의 세력만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이들입니다. 서로를 자신의 판단 안에 가둬 상대방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따라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이들 각각에 대해 불편함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란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하여 말을 아낀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있는 대화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진정한 대화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

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2019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의 조선인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재일조선인들과 일주일가량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현지 조선학교의 수업을 참관하고 페인트 보수 작업을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일은 그곳 학생, 학부모들과 먹고 마시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 운동을 즐기며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진정한 대화 공간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걸으며 드러나는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저의 시선 속에는 분명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김명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의 삶이 일제 강점기 당시의 강제 징용과 조선인 학살 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역사는 일본 사회 속에서 그들이 받는 차별 속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함께 그들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재일조선인 공동체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안에는 재일조선인을 향한 또 다른 시선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공동체는 조총련계 재일조선인 공동체, 곧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기에 그에 대한 고민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지 조선학교에서 북한에서 불법한 수업이 진행되는 것과,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의 가사가 담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재일조선인을 향한 양가적 감정과 시선으로 인해 제 안에는 혼란스러움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재일조선인을 향한 양가적 시선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모여 대화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았고, 학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다시면서 다른 경로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드린 질문 중에는 왜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이나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지, 또 이 세 국가 중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국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일본이나 한국,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강제로 일본에 끌려오면서도 간직했던 조선 민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일본에 의해 ‘빼앗긴 정체성’이고, 자신들의 가족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지켰던 정체성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 모진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생각을 나누었을 때 재일조선인들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한 저의 시선의 혼란스러움도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재일조선인 분들과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생

활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래였기에 저희들은 사춘동생들과 놀아주듯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아하는 음식과 가수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녁에는 축구부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는 재일조선인과 일본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연애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재일조선인과 저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그들을 북한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으며, 돈까스와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한 명의 학생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 속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번의 경험으로 인해 재일조선인을 향한 기존의 모든 선입견과 판단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재일조선인을 향한 시선과 관련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며 쌓인 친밀함은 분명히 한 사람의 외적인 규정 배후에 있는 인격을 볼 수 있게 하여 그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로 재일조선인 분들을 만나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4.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

‘우리는 화해의 생활양식을 취한다. ... 갈등의 저쪽 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환대하며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 장벽을 넘어서는 행동을 먼저 취한다. ... 갈등의 상처들을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데 참여하며, 교회로 하여금 과거의 적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피난처와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한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 행동요청, B항)

케이프타운 서약은 화해를 말하고 있고, 화해를 위해서 장벽을 넘어서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첫 번째 행동은 진정한 대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경험한 대화가 바로 진정한 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마주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선입견과 판단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을 담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도 나를 향한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 존중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대화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의 쟁점과 관련된 대화와 모임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갈등의 쟁점 너머에 있는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보일 것이고, 그 사람과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갈등을 마주합니다. 로잔이 말하는 총체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갈등의 쟁점 속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진정한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저부터 먼저 상대방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존중하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명의 사람을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공인 철학을 살려 저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서양 철학의 시초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하는 방식을 가리켜 '산파술'이라고 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산파가 도와주듯이, 자신은 상대방이 지식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곧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앞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문제와 관련된 진정한 앞도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한 앞에 이를 수 있는 길도 대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바라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리가 도래하는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김서진 (방송작가)

1. 들어가며

로잔너머 심포지엄 발제를 맡아보겠냐는 제안에 당연하게도 쉽게 승낙하지 못했다. 복음주의, 전도, 사회참여 등 나에게 로잔은 키워드로만 똥똥 떠서 유명하는 어떤 것이었고, 올해서야 처음 들여다본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다. 얕은 이해이지만, 아직까지는 여성 청년들이 들여다보고 참여해볼만한 의미의 운동이라고 판단했다.¹⁾ 또한, 여성 청년의 이야기가 개신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로잔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작은 이의 이야기도 담론이 될 수 있고, 닿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밑바탕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남성 위주의 개신교 내부에서 여전히 자신을 던지며 싸우는 믿음의 여성 선배들에게 화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의지를 잃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제 막 로잔을 알아가는, 로잔과 세상과 교회 경계에 서 있는 여성 청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제했다. 한국교회에 성, 차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곁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 발제했다. 이 자리가 이야기하는 ‘청년’에 엘리트 신학자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평범한 여성 청년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 여성의 현실²⁾

예장합동에 속한 본인 교회 대예배는 장로, 남성 안수집사만 대표기도를 한다. 20대 초반 캠퍼스 선교단체 등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교회의 이야기를 접해보니 그제야 이상했다. 이 교단이 남성 목사만 세운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예배 기도까지 전부 남성의 몫이라니 새삼스레 불편했다. 목사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봐도 난처한 대답뿐이었다. 교단의 결정에 따르는 모양이었다. 선교단체 후배의 모교회는 더 이상했다. 여성은 찬양 팀으로 설 때조차도 제약이 많은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로 왔다고 했다. 따끈따끈한 소식도 있다. 매년 예장합동 총회에서

1) 상반기부터 알게 된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의 이강일 소장님 덕이 컸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청년들의 의견을 대하는 태도가 로잔이 여전히 ‘괜찮은 운동’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2) 개신교 내부의 여성을 말한다.

는 여성 목회자의 강도권, 안수 허용에 관한 안건이 올라가지만 번번이 무너지는데, 지난 9월에는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용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얼마 전, 페미니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모두 크리스천들이었는데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남성이었다. 질문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나온 질문은 ‘여성에게 밤길이 진짜로 무서운지’였다. 화는 나지 않았지만 순간 말은 잃었고, 이것이 현실이었다. 자리에 모였던 남성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참여적인 삶을 고민하며, 신앙을 탐구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적어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일 것이라 믿는다. 알기 때문에 악의 없는 순수한 질문이라고 이해하면서도, 그것은 결국 여성 청년 앞에 닥친 현실이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에게 여성 의제가 ‘여성’만의 의제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여성 의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이유가 ‘아무래도 남성’이기 때문이었다. 여성 의제가 남성들의 주요 의제로 여겨지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까? 여성 의제는 남성과 가정과 교육과 사회구조와, 그렇게 나아가 개인과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남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의제가 ‘나의 의제’가 아닐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타 의제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교회 내 여성 청년들이 ‘미래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교회의 주요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력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수궁하고, 때로는 속으로 분노한다. 왜 여성은 주요 자리에 설 수 없을까. 왜 여성에게는 주로 양육과 봉사에 한정된 사역만을 요구할까. 교회 안의 여성 청년들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조신한 태도를 취하며 산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매주 불편해도 매주 분노할 수 없다. 매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분개할 수는 없으니까. 교단과 교회를 떠나라는 조언도 꽤 많이 들었지만, 교단을 옮기고 대안교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

어찌저찌 교회를 버텨내고 있지만, 전도의 영역에서는 또 말이 다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이 정체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당당하게 초대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 물리적 공간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자랑은커녕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만연한 고집과 편견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보니 초대는 고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숨길 거리가 되기도 한다. 나중에 개신교 내부에 남는 청년은, 그 중에서도 여성 청년은 몇이나 될까.

3. 연결되기 위해서는

숨통이 필요하다. 단숨에 교회를 뒤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면 가진 의제를 부담 없이 터놓고 나눌, 함께 변화를 논의하고 지원해 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로잔은 그간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커다란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몇 가지 태도를 지닌다면 로잔이 지금껏 그래왔듯 여전히 복음주의자 여성 청년들에게 공동체가, 공동체를 만날 플랫폼이 되어줄

수 있다고 본다.

1)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흔히들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라 한다. 그래서일까, 대화로 시작해도 종종 논쟁이 된다. 논쟁해야 할 때와 받아들여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신학적 잣대를 들이밀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을 종종 마주한다. 일단 다르면 낙인찍고, 그것을 승리라 부른다.

‘우리는 어떤 공통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가?’ ‘왜 자꾸 갈라지지만 하는가?’에 대해 자주 고민한다. 로잔은 초교파적으로 모인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란다. 그런 로잔이 공유하는 커다란 신앙고백이 무엇이며, 정말로 동일한 신앙고백 아래에 있다면 어떤 신학적 견해도 함께 공론장에 올릴 수 있을까?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 해볼 수 있을까?

로잔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자료를 찾아봐도 손에 딱 잡히지 않았다. 서약문을 읽어보아도 ‘이런 결이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느껴질 뿐, 깔끔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웠다. 복음주의자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니 로잔도 그럴것다 하며 ‘맥락’으로 이해했다. 강제성과 처벌로 가득한 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곳이었다. 이것이 이분법에 익숙한 한국교회와 로잔이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음주의권의 여성 청년들은 교회 안팎으로 소외의 두려움에 놓여있다. 여성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전제와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매우 필요하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감각의 개념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를 끌어안는 일이다. 상대의 배경을 익히고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일이다. 로잔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곳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세상도, 성경도, 로잔도 내러티브로 이해해야 하듯 여성들의 이야기도 내러티브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은 신앙고백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군사와 재판장이 아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2) 시혜적인 태도와 침묵에서 벗어나 여성 의제를 주요 의제로 삼기

이번 예정합동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허용’이 번복되기 전 잠시 허용이 결정되었을 때, 총대들은 “이번 결정이 여성목사 안수와는 관계없다”³⁾며 선을 그었다. 기분이 나빴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권 허용마저 번복되었다. 다른 교단은 괜찮을까? 여성안수를 법제화한 예정통합 총회도 남성 목사와 남성 장로에 비해 여성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며⁴⁾, 여성 총대 할당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장조차도 올해 총회에서 여성 총대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안건을 기각시켰다.⁵⁾

한국교회를 예시로 들었지만 로잔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로잔에 참여하는 여성

3) 장창일, 김아영, 유경진, 예정합동 ‘여성 강도사’ 길 열어... 女사역자도 설교한다, 국민일보, 2023.9.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105&code=23111113&cp=nv>

4) 장창일, [미션 특] 해외교회, 여성 지도자 속속 배출하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유리천장’ 국민일보, 2023.9.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3458&code=23111633&cp=nv>

5) 나수진, [기장5] 여성총대 비율 확대한 ‘기각’, 뉴스앤조이, 2023.09.20.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09>

비율이 늘고 있다지만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방안이 칭찬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에도 온통 남성뿐이다. 여성들이 교육과 봉사와 리더십에 참여하도록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열자고 외치면서⁶⁾ 누가 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다가 “우리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피상성과 제자도의 결핍, 그리고 우리의 분열과 사랑의 결핍을 애통해한다.”⁷⁾고 이야기하던 케이프타운 서약 결론의 문장이, 내년 서울대회 문서에도 다시 한 번 더 쓰이는 건 아닌지, 매년 피상성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교회든 로잔이든 이렇게 부분적인 허용과 참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단순한 방안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핵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다분히 시혜적인 태도다. 시혜적인 태도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여성을 답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태도가 ‘침묵’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대다수의 남성에게 여성 의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견고한 남성 위주의 공동체에서 여성 의제는 대체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소수의 여성들이 언제나 그랬듯 울분을 토하며 바깥에서 이야기해야 할까? 여성 의제가 자신의 의제로 여겨지는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 모두가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참여와 복음 전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총체적인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야 하듯, 여성의제는 다양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주요 의제로 자연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성들이 여성 문제를 ‘내 일이 아니니까’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일처럼’ 생각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3) 자세를 낮춰 다가가기

기성세대에게 로잔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다. 나 또한 로잔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여겨진다. 하지만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로잔은 참여의 허들이 꽤나 높은 운동이자 낯선 대회다. 정보량이 부족한 동네 작은 교회의 청년들은 로잔의 존재나 참여하는 방법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로잔정신을 필요로 하고 로잔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로잔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역자, 신학생 중심의 홍보가 아닌, 구석진 동네의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로잔이 자발성을 강조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보과다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고고한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쉬운 팸플릿을 만들고, 로고송을 만들고, 프로젝트 팀을 꾸려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한다. 나 또한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로잔에 작은 희망을 걸게 된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보다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열린다.

큰 교회가 조직적으로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모여 하나의 이어진 운동과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로잔의 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을 때다. 로잔이 여느 개신교 모임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남기 위한 곳이 아니라면.

6)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2014, IVP, 126쪽.

7)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2014, IVP, 130쪽.

4. 우리는 진짜 연결되고자 하는가?

사실 진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진짜 연결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진짜 말하는 만큼 살아가고 있을까?

만화가 윤태호의 <미생>이라는 오피스물 작품을 보면, 신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사업 기획안을 쓰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영업 팀에서 제출한 사업 기획안이 재무 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되어 돌아온다.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작품 내 신입사원은 진짜 사업을 만들지 않고 ‘사업놀이’를 위한 기획안을 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⁸⁾ 영업 팀은 기획안을 쓰는 시늉만 했을 뿐, 기획안에 담긴 내용이 진짜 ‘일’이 되게끔 만들지 않았다는 거다.

여러 법정 드라마에서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건의 유죄와 무죄를 가려내기 위해 치열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용인되는 지점에서 ‘이정도면 됐다’고 판단할 만큼만 움직여 재판을 빠르게 끝내는 장면이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의 진짜 쟁점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해결을 하여 사건에 얽힌 것들을 풀어내는 것일 텐데.

케이프타운 서약 결론에서는 로잔의 여러 활동을 통해 나온 수많은 목소리를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 급진적인 순종의 제자도가 필요하다.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며,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
- 십자가 중심의 급진적인 화해가 필요하다. 하나 됨으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소망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한다.⁹⁾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 때도 이미 지지부진한 활동들을 고민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 고민했던 대로 지금은 진짜 연결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안하면 드는 죄책감이 싫어 여전히 흉내만 내며 애통‘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른다면 방법을 강구하면서, 완벽한 결론이 아닐지라도 일단 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미생>에서는 삶은 어찌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란¹⁰⁾ 신앙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다. 우리는 끝없이 문을 열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망설이기만 한다면 영영 문 너머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로잔은 운동이기에, 로잔 정신을 한 사람이 체득하고 온전히 실천해낼 때야 비로소 진정한 지속을 논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의 논의도, 내년 로잔대회에서 문서화될 많은 이야기들도 문장에 갇힌 구호로만 남기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글은 우리의 삶보다 자주 변지르르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때문에 사람은 실망감 속에서도 여전히 연결될 공동체를 찾는다. 사람과 사람이 늘상 완벽하게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

8) 윤태호,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3: 기풍”, 위즈덤하우스, 2012, 146~149쪽.

9)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 (최형근, 역), 2014, IVP, 129쪽.

10) 윤태호,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3: 기풍”, 위즈덤하우스, 2012, 234~235쪽.

퇴함으로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내딛자. 우리의 화해가 한 발자국에서 시작될 때 로잔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인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물 만난 물고기>의 가사로 마무리해본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the way we sing.’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하기¹¹⁾¹²⁾

박다혜 (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¹³⁾

1. 들어가며

저는 85년생 11년차 변호사입니다. 굳이 숫자로 제 소개를 시작하는 이유는, 소위 ‘청년’으로서의 어떠한 지표나 정체성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밀레니얼세대(M세대)의 끝자락에 걸쳐있기는 하지만, 저의 가치와 지향과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거나 저를 둘러싼 생애경험을 고려한다면 흔히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세대로 일컬어지는 의미와 맥락을 갖고 저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¹⁴⁾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 <로잔운동과 청년의 공감>이 청년이라는 ‘세대’를 호명하는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1974년 로잔언약의 선포 당시 혹은 그 가까운 시기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을 청년으로 통칭하며 이들이 로잔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며 본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발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대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환경단체, 노동조합 법률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소송과 자문, 연구, 입법,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환경, 정당정치, 복지국가, 불평등 등의 의제에 관심이 많고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에 활동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운동과 기후위기운동에 애정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 2차 심포지엄(8. 29.) 발제문에서 구교형 이사장께서는 ‘86형 복음주의 세대’의 공동의 목표가 독재와 재벌 반대였다고 하셨는데¹⁵⁾ 저는 민주주의, 국가폭력, 자본주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여전히 ‘오늘날의 과제’로서 꺼안고 씨름하면서, 동시에 젠더, 차별, 기후위기와 같은 의제 역시 ‘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동을 하며 널리 이웃과 함께 존엄한 시민으로 사는 삶을 꿈꾸는,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11) 본 발제문은 ‘로잔너머’ 연속심포지엄을 위해 모인 제한된 범위의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개인적 고백임을 밝힙니다.

12) 발제문의 제목은 벨 훅스,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2023에서 영감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13)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소속

14) 저는 ‘청년’이라는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평가에 동의하며, 소득, 재산, 학력, 성별, 지역, 직업 등을 배제한 채 세대라는 분류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사유하는 대부분의 세대담론을 거부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분석은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2022, 제1장과 제2장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15) 복음과 상황 2021년 1월호에 실린 이강일 목사의 글(사이드도 바꾼 복음주의, 우리는 어떻게 할까)에서도 ‘우리 때’ 복음주의 운동을 동일한 취지로 평가합니다.

어린 시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나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다른 운동에 비한다면 교회나 교계, 복음주의 운동, 하나님나라 운동 등에 대한 일종의 소속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며 저를 낯설고 신기해하는 질문을 교회 안팎에서 자주 받아 왔습니다. 한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가 제 고민이자 숙제라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2. 로잔정신의 무엇에, 어떻게 공감하는가

이런 제가 이 자리에 섭외될 때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로잔운동에 대한 공감이라니, 새삼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찍이 대학 시절 출석하던 교회에서 로잔언약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 배워 알고 있었고, 로잔언약과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이 모두 등장하는 교리신조를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앎과 경험은 제게 분명 어떠한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배운 ‘복음의 총체성’을 실천하고자 어떠한 삶의 경로를 거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해외선교를 강조하며 제게 의대 진학을 강하게 권면했고,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활동한 캠퍼스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케 하는 것에 집중했을 뿐 사회참여나 사회선교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며 접한 르완다 학살과 같은 분쟁지역 문제,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빈곤과 착취, 전 세계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 등에 대한 깊은 고민, 당시 ‘장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범죄로 인해 위협받는 민주주의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한탄과 기도가 공명될 공간이 없었습니다. 신우회 등의 모임도 꾸준히 시도했지만 성적과 시험합격 같은 사적 성취를 여럿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제목으로 내놓는 자리에는 좀처럼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 제가 공동체라고 부르던 교회나 선교단체의 지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함께 모여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배웠지만, 아쉽게도 어디에서도 세상 한 복판에서 같은 뜻을 품는 이, 동지(同志)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나와 이웃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것인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¹⁶⁾ 나의 노동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것인지와 같은 고민이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던 이들과 그것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밖에서 저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야 복음주의 운동 등 교계의 여러, 그러나 작은, 결코 다수는 아닌 활동을 알고 반가워했을 뿐¹⁷⁾, 제가 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활동하는 동지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지난 심포지엄에서 백소영 교수께서 본인이 ‘복음주의 진영의 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에

16) 시편 127:1

17) 몇 년 전부터 복음과 상황을 구독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교계 내 여러 활동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되었고, 여러 투쟁 현장에서 스킷 마주친 소수의 예배가 누군가의 활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한국 대회는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올해에서야 처음 혼자 참여해봤습니다. ‘활동가’라는 용어를 그쪽(?)에서도 쓴다는 사실과 스스로를 활동가라 칭하던 직업인이라 여기든 이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서 자랐지만 복음주의 진영은커녕 교회의 딸도 아닙니다(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그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와 저의 예배를 이루는 내용은 교회가 흔히 '세상'이라 부르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책, '민지 않는 이들'로 가득한 크고 작은 공동체, 투쟁하는 이들로부터 배운 사랑과 연대의 경험, 공부하는 이들이 쌓아 올린 지적 성취에 빛진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반영되도록 애쓰는 길 위에 서고 싶다고 감히 꿈꿀 수 있었습니다.¹⁸⁾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써 내려간 저의 서사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대부분 무관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으니깐요. 그러나 동시에 저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교육을 받고 협소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졌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주님의 신비가 존재했음을 압니다.¹⁹⁾ 캠퍼스 시절 거의 매일 모여 열방을 향해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기도는 오늘날 현장에서의 생생한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은 불화하지 않았고 제가 믿는 것은 자연스럽게 저의 공부, 일, 활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물론 그 과정에는 고민과 버팀으로 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의 총체성'이나 '하나님의 선교' 등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총체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하며 예배하여 왔습니다.²⁰⁾ 재판관을 준비하며 조용히 책상에 앉아 밤을 새워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써내려가는 시간을 통해 그 어느 순간보다 간절하고 실제적으로 이웃들의 삶을 헤아립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주께 탄원하기도 합니다. 세세한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일터와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분투하며, 때로는 사건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갖 책과 논문과 보고서를 뒤지며 근거와 논리를 찾아 헤매는 순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진실된 예배이자 선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지지받는 안정감 속에서 노동의 과정과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제가 꽤 단단하고 의연한 사람 같지만 자주 그렇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농촌이주여성의 노동을 추적하며, 재벌기업에서 노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경찰까지 동원되어 온 가족이 사찰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고 장시간·야간노동이 혈값으로 후려쳐지는 것을 보며, 심지어 법원 판결조차 소용없는 뻔뻔한 기업들과 철용성 같은 공권력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이들을 계속 마주하며, 자주 분노하고 한탄합니다. 우리의 노동과 애씀이 한없이 헛되게 느껴질 때면 온종일 찬양을 들으며 침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고하고 애쓴 소송에서 패소해 내 이웃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쟁취하지 못할 때, 법원이 일터에서 죽은 이들을 외면하고 '목숨값'을 한없이 가벼이 볼 때와 같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때'를 만나면 심히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좌절하지 않고 넘어진 사람들을 돌보고 다음을 도모하는 멋진 동지들을 보며, 일터

18) 복음과 상황 2023년 6월호에 실린 제 글(신학하는 마음, 다행의 마음)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져왔습니다.

19)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신앙교육과 신앙생활 등을 미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미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만,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분명 다른 교회, 다른 캠퍼스 선교단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20)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총체적이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이윤보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변화를 일구는 빛나는 이들 덕에, 마음을 추스르고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한 자락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는 때때로 실패해도 그 중심에 자리한 사랑을 보시고 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끝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인간의 노동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는 노동이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일부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각기 다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의 노동하는 삶 전체가 사역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케이프타운 서약 2부 행동요청 A항).

복음이 상황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이면의 불의한 세계관과 체제에 도전하고 이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악한 날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헌신짝처럼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의 충성이나 행위들로 되돌아갈 것이다(케이프타운 서약 2부 행동요청 B항).

구체적인 맥락과 결은 조금씩 달리 하지만 로잔언약과 이를 계승한 각 서약이 보여주는 로잔정신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상황에 뿌리 내리라고, 교회 담벼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저는 로잔정신에 공감하고 이를 계승하려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자리가 “2024 로잔대회가 담아내야 할 ‘총체적 복음의 이슈’와 한국교회가 로잔정신을 영적, 신학적 자양분으로 삼아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되게는 오랫동안 복음주의 운동을 하며 그 실천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과 책임이 있는 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 ‘세상의 딸’인 저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묻는 것에서 그 고민을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웃, 특히 작고 약한 이들을 사랑하다 보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저항하는 동지들도 만나게 됩니다. 공공성과 운동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몫을 두고 지금까지 제가 찾은 답입니다. 변호사로서 입법활동을 하고 환경운동에 관여하고 지금처럼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법률원을 나와 내년부터 새롭게 움직이려 하는 시간은 그 답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법정에서의 언어와 운동의 언어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각의 언어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실천에 유리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몫과 과정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음의 우산 안에서 가능한 정체성, 가능한 서사가 단 하나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다른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언어, 이중언어를 쓰는 것을 널리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본래부터 저러해서, 저러한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죽음조차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나와 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평온에 감사할 뿐,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간다. (중략)

이윤의 추구는 기업의 본래 그러한 모습이고,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인간은 비록 밥줄이 시장에 얽매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산다. 경쟁과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시장의 진리라고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은 시장의 작동방식이 빚어내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하는 까닭은 시장은 그 문제를 시장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²¹⁾

우리에게는 세상 곳곳의 깨어짐과 슬한 움직임이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곁에 서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깨지고 상한 세상’이라는 것이 나와 이웃이 당면한 현실로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고개 돌리고 거리를 두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더 큰 불평등을 양산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²²⁾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화답이 침묵, 무관심, 중립을 지킨다는 핑계로 그에 공모하는 것은 아닌지 아프게 돌아봅니다. 오늘도 7명 이상의 노동자는 일터로 출근했다가 생을 잃었을 것인데,²³⁾ 우리의 자리가 이윤추구와 시장의 논리로 다쳐진 매끈하고 평온한 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에 눈을 떴다고 하는 이들이 세상이 깨지고 상한 곳임을 인지했다면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며 교회로 초대하고, 나머지 각자 일상은 ‘깨지고 상한’ 그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혹은 그에 복무하며 산다?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서, 우리의 ‘복음’이 어쩌다 그렇게 귀결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소위 믿음의 공동체에 갇히거나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동지와 공동체를 찾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가면 그곳에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예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손·발이 교회나 선교단체, 가령 이런 자리나 성서한국 대회에 모이는 단체들 같은 정도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참여하든 베풀어서 교회나 복음주의 운동 안에 변주하여 이식하든 말이지요. 다양한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쓰며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을 함께 목격하고 예배하는 동지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끝)

21) 김훈, 빛과 어둠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노동과세계, 2019. 9. 25.

22) 월 스트런지 외, 오버타임, 2021, 12, 13쪽

23)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황규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 대화, 전도와 참여, 공존, 솔직함, 함께 시간 보내기”에 대한 논찬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유튜브 민춘살롱)

로잔 언약은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치고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선언은 우선성이 아니라 궁극성으로 복음전도의 위치를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현실에서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참고로 논찬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통합”을 논할 수 있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마치 안과 밖에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잔 언약과 케이프타운의 신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갈등은 발제자가 말씀하신대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심지어 로잔 운동 자체 내에서도 그 갈등은 더 심화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립니다. 갈등하는 두 입장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힘을 견주면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물론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쪽이 힘을 더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쪽의 입장이 세를 얻으며 힘이 약한 쪽은 갈등 자체를 회피하며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며 전체 무대에서 퇴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분석일 수 있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그리고 어쩌면 국제 로잔과 한국 로잔의 상황)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비슷한 힘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기보다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입장이 좀 더 주류가 되면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신들만의 세계로 퇴각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일 논찬자의 우려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발제자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견해와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견해가 비슷한 힘으로 긴장 속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사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한국 기독교는 로잔언약에서 시작해 케이프타운 선언으로 정리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삶에 대한 이해가 거의 무너져 버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발제자는 자신이 경험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갈등의 극복하고 그것들의 통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성을 실현하는 한 가지 길로 솔직함과 함께 시간 보내기에 기초한 진정한 대화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제시합니다. 발제자가 인정한 것처럼 발제자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대화의 토대와 그 열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의 갈등에도 잘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화”는 현재 한국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장면들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논찬자는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밀접한 일을 하면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한 특징을 “혐오와 차별, 독선과 대결의 근본주의 신학이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지는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들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논찬자는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들과 대결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나누었을 때 많은 분들의 공감을 경험합니다. 대화는 기독교의 핵심 덕목인 겸손과 관용의 실천적 열매입니다. 겸손과 관용에 뿌리 내린 대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의와 갈등 상황에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한국 기독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국제 로잔 운동에서 발제자가 제안하고 바라는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대화가 가능한 토대(솔직함과 함께함)와 장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토대와 장을 마련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발제문의 제목과 덧붙여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까요? 대화는 하고 싶을까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 발제자가 제안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 삶의 총체성 회복과 실현을 시작할 수 있을 때만 50년 전 로잔에서 시작해 14년 전 케이프타운에서 맺힌 열매를 그마나 맛볼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통합과 화해 가능성 논의를 넘어 어떤 복음 전도인지, 어떤 사회 참여인지, 이 둘과 평화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대화할 수 있는 “서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기회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관계를 다시 논해야 하는 퇴행적 상황 속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서울의 특별한 기회”를 “새로운 세대”에 넘겨주는 것만이 “서울 2024”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김서진, 로잔: 안전한 공간, 모두의 놀이터를 향하여] 논찬

김종호 (IFES 동아시아 부총무)

4년 전 중학교 3학년이던 막내딸이 우리를 따라 대예배에 참석했다. 그날은 마침 첫째 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찬 주일이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라”는 안내에 따라 몇 분이 일어났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앉아 있던 막내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의 귀에 대고 묻는다. “왜 다 남자예요?”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울 것도 없고 익숙해진 광경에서 막내는 의문을 가졌다. 왜 다 남자인가? 한편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분들은 왜 다 여자인가? 진짜 고민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너무나 궁색하다는 점이고, 이에 답할 의지가 교단이나 각 교회 리더십 안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누나들 셋 아래서 자랐고, 딸 셋을 키웠지만 부끄럽게도 여성의 목소리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달리 봐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건 10년 남짓 된 것 같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없이 살았기 때문이고, 그걸 특권이라고 부르는 걸 깨달았다. 백인의 특권(White Privilege)이라는 개념을 접하면서 내가 가진 남성의 특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늘 발제하신 김서진님은 이렇게 팔자 좋게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성 의제가 여성만의 의제가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나의 의제로 삼을 수 있겠냐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던 세상을 살다, 강남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의 죽음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 같은 분노의 목소리가 남성들의 아둔한 귀를 강타했다. 그 목소리에 놀라고 당황했고 숙연해졌고 미안했다. 한편으로는 숨기도 했고,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는 사람들도 나왔다. 혹은 반발하고 억울해하고 혐오를 강화하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 지점을 간파한 정치는 여성과 남성을 갈라 혐오라는 연료를 태워가며 정치적 목적에 젠더 갈등을 활용하는 교활함을 보였다. 지난 6월, “화해의 제자도” 저자인 크리스 라이스와 대화를 하던 중 백인의 죄책감(White Guilt)이란 용어를 처음 접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을 따로 들을 필요도 없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다. 왜냐하면 나는 남성의 죄책감(Male Guilt)을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딸들은 확실한 페미니스트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겪는 황당한 일들이 벌써부터 많은 걸 안다. 그런데도 딸들의 고민을 헤아리고 함께하지 못한 채 일부 사안들에 대해 내가 무지한 말을 하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 딸들의 분노와 격한 감정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도 위축이 되고 미안한 마음에 딸들 눈치를 보게

되었다. 죄책감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마비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들어 마땅히 할 일 인데도 외면하거나 침묵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 상대방의 무지를 공격하는 방식이 건강한 반응으로 이어지거란 매우 어렵다. 남성들의 각성과 건강한 역할을 기대하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인내한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답답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만히 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격한다고 변화되지도 않으니 결국은 진실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길 외에는 해법이 없다. 로잔이 김서진 님이 말한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 다른 세계를 끌어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공간을 안전한 공간(safe space)이라고 부른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과 공격 이전에 공감을 연습하게 된다. 이렇게 로잔은 모든 이들의 놀이터와 안전한 공간으로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특권은 책임을 수반한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의 이익과 안전에 만족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내 특권 너머에서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는 감수성을 갖춘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내가 언젠가는 약자, 소수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때도 안전할 수 있을 때, 그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다. 남녀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과 경험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교육이고 실천이 될 수 있다.

더욱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선의나 호의 이상의 장치들이 필요하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와 함께 일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행사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성비의 균형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 규정 덕에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의 성비, 연령구성이 제대로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그냥 하다 보면 여전히 혜택처럼 한 자리 주고 마는 지금의 관행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참 징글징글한 게 교회다. 교회로 인해 답답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로 느껴지는 사연들을 종종 접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표를 지내신 송인수 선생님과 함께 농반진반으로 ‘(사)교회걱정없는세상’ 설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며 허탈하게 웃은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곳이 또 없다. 교회에서라도 이런 갈등을 넘어 이해를 경험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언어를 찾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이뤄져야 한다.

갈수록 분열과 대립이 심해지고, 어떤 권위 앞에 자기를 내려놓기보다 자아가 최고의 권위가 된 세상이구나 싶다. 자기의 생각과 억울함이 가장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서로가 매우 공격적, 방어적인, 그래서 모든 게 조심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안전하게 느낄만한 편안한 자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고 공감을 연습하는 공간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세상에서는 포기한 것들을 구현해내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로잔이 여전히 붙들어야 할 책임이고, 그래야 젊은이들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공간이 될 것이다.

[박다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에 대한 논찬

이강일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 목사)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지 못했던 삶의 태도를 만났습니다. 발제자 박다혜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다수의 복음주의자의 접근과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애증이 있지만 그래도 빛진 심정으로 사랑하며,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문제에 응답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은 세상과 무관한 이 교회활동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지 오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발제자는 이런 신앙 분포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로잔언약을 신앙고백문으로 삼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신앙훈련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찬양을 특별히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서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환경, 정당 정치, 복지국가, 불평등, 여성, 기후 위기에 이르는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변호사 활동 사이에 특별한 연결점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각각 별도로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이며 '주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에 대한 독특한 이중적 태도가 계속 그의 발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교회 밖에서 나로서 살아왔다'는 그이지만 하나님만큼은 세상에도 계시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게 느껴질 때면 종일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끝내 승리하신다는 확신도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써 내려간 나의 서사' 속에 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교회가 깊이 개입하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모를 동지들과 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문제에 맞서는 세상의 동지들과 함께 자기 이야기를 써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문에서 노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점과 복음이 '불의한 세계에서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잔정신에 공감하고 계승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로잔의 총체적 선교 언급이 떠오릅니다.

총체적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드러내는 것이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총체적 선교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케이프타운 선언 1부 10항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그는 로잔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독자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천명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원래 WCC가 1950년대부터 견지하던 것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직도 낯설고 설명이 더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은 ‘교회의 선교’라는 정신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구두로 선포하고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려는, 협의의 선교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를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유일한 주체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서 하시는 총체적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라는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발제자의 고백은 ‘교회의 선교’보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들이 로잔언약(1974)이나 마닐라 선언(1989)이 아니라 케이프타운 서약(2010)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로잔운동은 문서상으로는 케이프타운 서약의 구체적 서술, 하나님의 선교, 화해의 정신까지 진척되었지만, 전체 구성원들이 이 정신을 이해, 구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로잔운동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발제자의 로잔정신에 대해 ‘공감과 계승’ 언급은 반가운 일입니다.

아울러 질문을 남깁니다. 자신은 ‘교회의 딸’이 아니고 차라리 ‘세상의 딸’이라는 표현은 전체를 다 읽고 보면 발제자의 논지와 다소 불일치해 보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느껴집니다. 현실 교회가 나의 세상 삶에 대해 지지와 응원을 보내지 못했으며, 동지는 세상에서 만났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교회의 딸이자 세상의 딸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했다면 본인의 전체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로잔 케이프타운 선언을 인용하면서 로잔이 삶과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필요해보였습니다. 끝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여전히 낯선 ‘하나님의 선교’의 선구적 모델 하나를 발제자의 삶과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